



홍팡팡 짠짠

말만 하면 기록되고, 쓸수록 내 주량을 아는 한국형 술친구

위드마크 공식 기반 실시간 BAC

자연어·음성 기록

AI 코칭 리포트

보호자 안전 귀가 연동

로컬 우선·오프라인 동작

혈중알코올농도가 위험 수준에 닿으면 보호자에게 내 위치까지 자동으로
알려 안전을 확보하고,
AI는 판단 없이 다독이며 절주를 이끄는 음주 안전망 앱

어떤 문제를 풀고 싶었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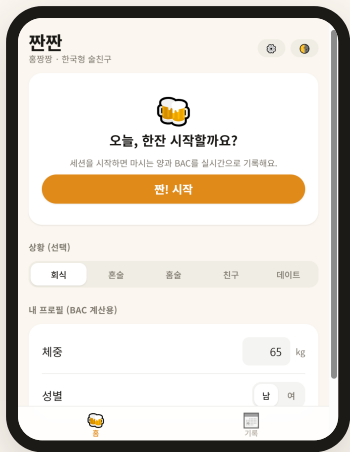
술자리는 "마시기 전(계획) → 마시는 중(기록) → 마신 후(회복)"이 하나로 이어지는데, 기존 앱들은 이 흐름을 따로따로 다룹니다. 그러다 보니 정작 위험한 순간(과음·귀가)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「짤짤」은 하나의 **술자리 세션**을 축으로 이 전 과정을 한 앱에서 관리합니다 — 실시간 BAC 추정, 자연어/음성으로 기록, 위험 신호 시 안전귀가 연동, 다음날 숙취 기록을 통한 개인화 학습까지.

핵심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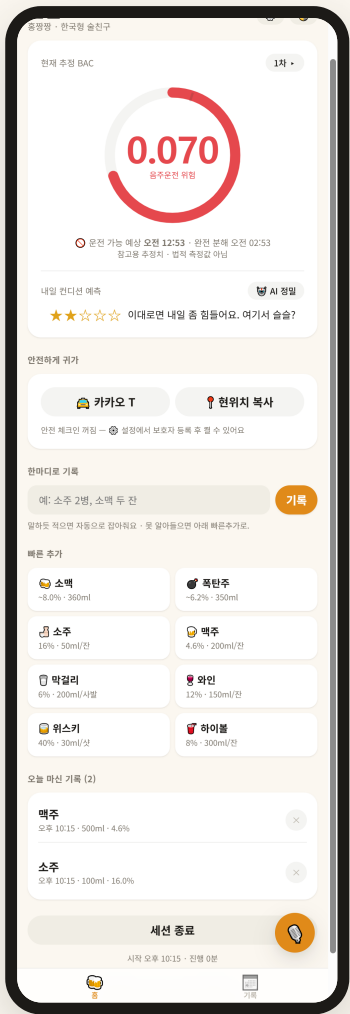
- **말하듯 기록** — "소주 2병, 소맥 두 잔"처럼 자연어(또는 음성)로 말하면 규칙 기반 파서가 종류·용량·도수를 자동 인식
- **실시간 BAC 게이지** — 위드마크 공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계산(AI 미사용). 운전 가능 예상 시각·완전 분해 시각을 실시간 표시
- **안전하게 귀가** — BAC가 위험 수준을 넘으면 주기적으로 "괜찮아요?"를 확인하고, 미응답 시 보호자에게 **현위치 링크가 담긴 문자**를 자동 준비. 카카오톡 호출도 한 번에
- **AI 코치 리포트** — 월간 음주 집계(요일·상황·과음일·칼로리·추정 비용)를 클라에서 먼저 계산하고, Gemini가 판단·훈계 없이 공감형 인사이트와 팁을 생성. 키가 없어도 오프라인 요약으로 항상 동작
- **내일 컨디션 예측** — 지금까지 마신 양을 기반으로 별점 예측 + 한마디. AI 정밀 모드는 과거 숙취 기록까지 반영
- **주량 학습** — 다음날 숙취를 기록할수록 개인의 알코올 분해 계수가 보정되어, 이후 BAC 추정이 내 몸에 맞게 정교해짐
- **캘린더 히트맵** — 한 달간의 음주 패턴을 강도별 색으로 한눈에, 금주 스트릭도 함께 표시

번들러 없는 순수 ES 모듈 + SQLite(sql.js/wasm) + Capacitor로 구현되어 웹과 Android에서 동일 코드로 동작하며, 핵심 로직(BAC-통계·파서·코치·안전 상태머신)은 전부 순수 함수로 분리해 122개의 자동화 테스트로 검증되어 있습니다.

기록의 시작과 실시간 BAC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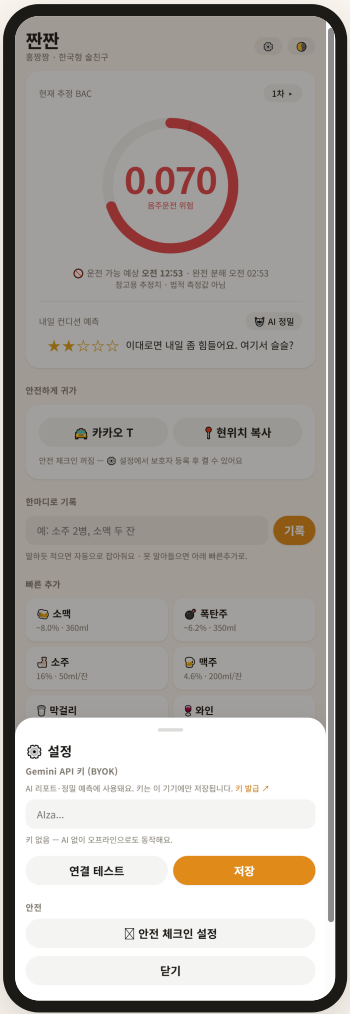
홈 — 세션 시작 전
상황 선택 + 체중/성별 프로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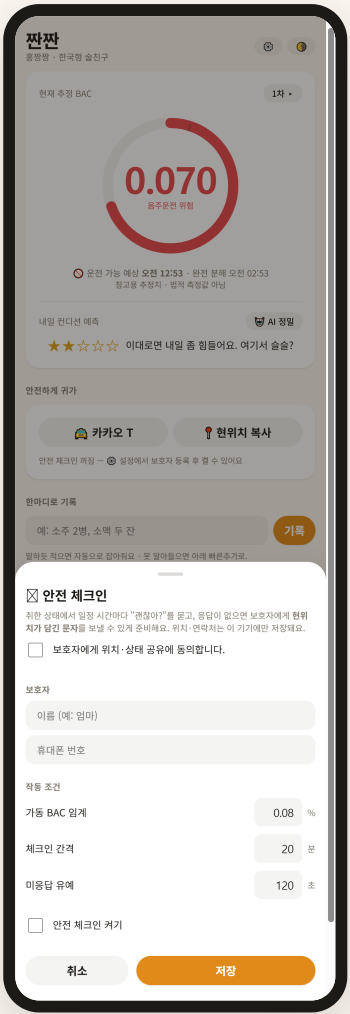
홈 — 세션 진행 중
실시간 BAC 게이지 · 내일 컨디션 예측 · 안전귀가 · 자연어 기록 · 빠른추가

실제 앱 화면 캡처 (Chrome 브라우저 미리보기, 390px 모바일 뷰포트)

설정 · 안전 체크인



설정



안전 체크인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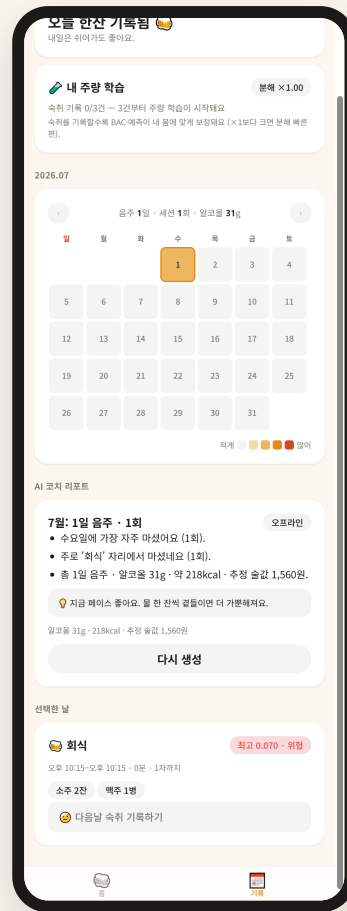
Gemini API 키(BYOK) 등록 · 키는 기기에만 저장 명시적 동의 후에만 보호자·임계 BAC·체크인 간격 설정 가능

보호자 위치·연락처는 이 기기에만 저장되며, 동의 없이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

기록 · AI 코치 리포트



기록 — 캘린더 히트맵
금주 스트릭 · 월간 요약 · 주량 학습 계수



AI 코치 리포트

오프라인 키 없이도 즉시 요약 · 키 등록 시 AI 가 공감형 인사이트 생성

이 캡처는 Gemini API 키 없이 실행한 오프라인 모드입니다 — 키가 없어도 항상 정상 동작함을 보여줍니다

실생활 술자리에서 AI(Gemini)를 쓰는 방식

① 계산은 결정론, 해석은 AI — 원칙의 분리

혈중알코올농도·알코올량처럼 **틀리면 안전에 직결되는 수치**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, 100% 결정론적으로 계산합니다. AI(Gemini)는 이 수치를 절대 계산하지 않고, 이미 계산이 끝난 데이터를 건네받아 **"판단·훈계 없이 공감하고 다독이는 코칭 문장"**을 생성하는 역할에만 씁니다.

② 안전 귀가는 규칙 기반, AI는 그 사이를 채우는 다정함

보호자 알림·위치 공유·카카오T 연동은 BAC 임계값 기반 상태머신이 담당합니다. 위험 신호 자체는 AI가 판단하지 않지만, 평소 술자리 패턴을 되짚어주고 절주 동기를 주는 **뉘는 AI**가 말아 "안전은 확실하게, 말은 다정하게"라는 톤을 만듭니다.

③ 없어도 되는 AI — Graceful Degradation

Gemini API 키가 없거나 호출이 실패해도 오프라인 휴리스틱 요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. AI는 있으면 더 좋은 "보너스"이지 앱의 필수 동작 조건이 아닙니다.

실제로 이렇게 씁니다

회식 자리마다 찐찐을 열어 말하듯 기록하고, 마시는 중엔 **"AI 정밀 예측"**으로 내일 컨디션을 미리 가늠해 오늘 여기서 멈출지 판단합니다. 위험 수준에 닿으면 안전 체크인이 보호자에게 위치 공유를 자동으로 준비하고, 월말엔 **AI 코치 리포트**로 그 달의 음주 패턴을 다정한 톤으로 돌아봅니다. 이렇게 몇 달 직접 써보며 과음일이 줄고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— 자세한 사용 경험은 별첨 「AI 활용 사례 5문항 답변」 문서를 참고해주세요.